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수요성경공부가 시작되는 동안은 화요일,수요일,금요일에만 아침묵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목요일 아침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9:1: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9/1)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42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Chris Choi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8:19-21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예수님의 가족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9월 15일	9월 22일
서경열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분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에다시)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등불의 비유

지난 주 말씀에서 옥토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탈로스라고 하는데 탈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그 '선한'이라는 단어가 탈로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비유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선한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선한 것이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은 선한 일이란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진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선한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옥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저 우리는 길가밭, 들짜밭, 가시덤굴에 휩쓸려 매일 매일 죄인됨을 발각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며 선한 농부가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은 땅을 기경하고 그 밭에 생명의 씨, 진리의 씨,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까지 과정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정이란 순탄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봄에 뿌려진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맺기 까지 술한 폭풍우와 장마와 가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의 지극정성인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과 그 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 뜻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대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은 드러났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풍조를 보십시오. 쓰나미처럼 문화를 통해 반기독교 정서를 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속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풍조인지도 인식하지 못한채 휩쓸려 삽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밭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 빛을 보여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좁은길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갑니다.

이것을 질그릇에 간직하였기에 질그릇에 집중하지 않고 보배에 집중하며 걷습니다. 나는 절대 옥토가 아니지만 내 안에 뿌려진 씨앗과 선하신 농부를 바라보며 걷습니다. 등이 아니라 등 안에 지퍼진 불을 보며 걷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은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 빛을 향해 걸어나가 질그릇이 아닌 보배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